

감염 확산에 '텅텅' 광주농산물도매시장

최근 집중호우로 상품성 떨어지고 물량 대폭 감소 코로나 장기화에 고강도 행정명령... '전염병 직격탄' 매출 50~80% 가량 ↓ · 경매시장 물품 절반이상 ↓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네요."

8일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일대는 적막감만 나돌았다.

"지난 3일 오후 시장을 방문했던 시민 2명이 5~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광주 420·428번째)"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과일·채소 경매장 내 도매상인들은 휴대전화 화면만 쳐다봤다. 안전 안내 문자에 적힌 확진자 동선을 살피며 분주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손님이 푹 끊긴 탓에 안마 기구로 어쩔만 두드리며 한 숨을 쉰 상인도 보였다. 대량으로 과일을 납품하는 추석 명절 특수도 사라졌다.

채소 경매장 일대는 더 썰렁했다. 쌈 채소를 다듬거나 감자·고구마가 담긴 상자를 정리하는 상인 일부만 잠깐 대화를 주고받았다.

도매상인들은 최근 집중 호우로 과일·채소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물량 또한 대폭 감소한 상황에 전염병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강도 행정명령으로 관광·기업·식당에 물건을 납품이 중단됐고, 폐업 속출로 거래처를 잃어 전전긍긍했다.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전에 비해 50~80%가량 줄었고,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품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11시 채소 경매 시작에 앞서 마스크를 쓴 경매사들의 표정도 어두워 보였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상인 일부는 오후 3시까지 문을 닫고 퇴근 중이다. '소비가 멎으면 도시 경제 전체가 후 켜진다'는 의미를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었다.



8일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 경매장 일대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이 도매시장을 다녀간 식당 주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상인들은 하루 2차례 시장 일대를 소독하고 있지만, 개인 위생 관리와 방역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각화동 도매시장을 다녀간 말바우 시장 내 국밥집 사장인 420번째 환자와 접촉한 이들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이날까지 해당 국밥집에만 19명의 환자가 쏟아졌다.

30번째 도매시장에서 영업 중인 A(68·여)씨는 "집중 호우에 코로나19

까지 덮치면서 먹고 살기 참 힘들다. 한 마디로 미칠 지경"이라며 "긴급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계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55)씨도 "시장 상인들은 소비를 '울스름'시키는 코로나 영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기 전부터 방역에 힘을 쏟아왔고 양성 판정을 받은 상인이 없는 만큼, 도매시장을 자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미희기자

'음주사고 뒤 연락두절' 20대 공무원 숨진채 발견

음주사고를 낸 뒤 연락이 끊긴 전남 목포지역 공무원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0시께 대양동의 한 주차장에서 목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29)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타다 남은 번개탄이 남아있었다.

A씨는 앞서 지난 5일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삼학도의 한 도로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나왔으며, 경찰은 음주사고로 보고 간단한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사실을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서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음주사고와 A씨의 사망과의 연관성 등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여수 해상서 50대 부부 탄 소형어선 전복...아내 숨져

전남 여수 해상에서 50대 부부가 탄 소형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1분께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남서쪽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아내 A(56·여)씨가 실종됐다가 해경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남편 B(57)씨는 사고 직후 주변 어선에 의해 곧바로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 취해 식당서 행패 뒤 경찰관 때린 공무원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식당 업주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광산구청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광주 광산구 도산동 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사장에게 음식물을 던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과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도로 왜 이용해' 서로 때린 대리 기사·차주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대리운전 요금을 놓고 서로를 때린 혐의(폭행)로 A(47)씨와 대리기사 B(57)씨를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종교시설 앞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기사 B씨가 동의도 없이 도심 순환도로를 이용해 통행료 1200원이 더 나왔다'고 주장, 먼저 기사 B씨의 목을 손으로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A씨에 맞서 머리를 들이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서 대게암컷 불법 유통한 30대 선장 구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3600여 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 A(3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선적 B호(43)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어선이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3600마리를 해상에서 넘겨받은 후 유통책임 C(59)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암컷을 포획한 어선을 추적하는 한편 A씨로부터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C씨도 같은 혐의로 불잡아 수사하고 있다.

'한달째 집단감염 확산' 광주 누적 확진자 460명대 육박

동시다발 집단전파... '감염원 미상' 환자도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광주에서 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가 459명으로 늘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이다. 이들은 453~459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453번 환자와 457·458·459번 환자는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시장 밥집과 연관성이 깊다. 이들 모두 시장 밥집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된다.

454번 환자와 456번 환자는 각각 청소용역 업체, 성립침례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도중 확진으로 판명됐다.

두 환자 모두 격리 이후 추가 동선·접촉자는 없다.

나머지 1명인 455번 환자는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로써 전날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 지난달 12일 '3차 유행'기간 중 감염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주민의 검체를 채취하기 전 문진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1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가 452명으로 늘었다.

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행정력을 모아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나선다.

정승호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황주홍 전 의원 구속

순천지원 "범죄 소명·증거 인멸·피의자 도주"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중 잡적한 이후 3개월 만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황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빈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 민생당 후보로 전남 고

흥·보성·장흥·강진선거구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강진 자택 압수수색 후 돌연 잠적해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범인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서울에서 황 전 의원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